

제 106 호

대림 제 2 주일

1974. 12. 8.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론]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김종길 신부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때 서너명의 교우들과 평일 미사를 봉헌할 때에는 이 인사의 기도가 몇몇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 1장 28절의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드린 장면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인도하시고, 슬픈일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곤난을 당할 때 보호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드릴 기회를 주시게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코린토후서 5장 19절)

실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느님과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은 비참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권력과 함께 하는 생활은 재물에 눈이 흐려지기 쉽고, 권력과 함께 하는 생활은 권세에 눈이 어두어지기 쉽고, 쾌락과 함께 하는 생활은 젊음과 자신을 믿어서 넘어지기 쉬운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권력을 믿다가 패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믿다가 힘없이 죽어갔는가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이며 당신들은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 15장 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만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사에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가까운 사람이거나 먼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줌으로써 생활해야겠습니다.

또한 현세 사물의 참된 의의와 가치를 그 자체로써 뿐만 아니라 인간 목적에 관련시켜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이 추위에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형제들과 병으로 시달리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보여주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여산 본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시온 백성아, 주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당신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실때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11:1-10)
빈약한 자들을 의로써 판단하시리라.
 창세기 22:1-18 정의를 그의 성대에 영원히 평화 넘치리라.

하느님, 당신 슬기로운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의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제2독서 (로마 15:4-9 성서 P 366)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신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3:1-12 성서 P. 4)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 신자들의 기도

1. 성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의 그릇됨을 제거하여 주시어 모든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여 당신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권리를 박탈 당하고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주여 부조리와 부정부패 앞에서 끝까지 항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

3.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 놓으셨듯이, 우리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

4. 모든 죄로부터 성모를 보호하신 주여.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때 축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이르도록 하여 주소서. ◎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심어 주시는 주여. 믿는 마음으로 구하는 바를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3) 성찬의 전례 □ 불린 □ 성찬식

영성체술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천주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보라

* 순정이 산책 *



가벼운 마음이며
성탄을 맞으시다

“축! 숲정이 두툼”



힘껏 자라고!

올려 퍼져라!

박 성 운 신부

사랑하는 숲정아!

네가 벌써 두살이라구? 놀랐어? 정말이야! 마치 주님과 같이 (누가 2:7) 그러나 그 분 보다는 조금 호화스러운 가톨릭센터의 한 구석을 산실로, 아는 등 모르는 등 고고의 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살이 되었으니 새삼스레 세월이 빠름을 느낀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성실과 인내로 착실하게 커서 이제는 전주시내 일원 뿐만 아니라, 도내 일원 방방 곡곡에 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음은 진정 기쁘지 않을 수 없구나. 눈 뜬 봉사가 많고, 귀먹은 병어리가 많은 우리 교회에, 너는 겨우 두살난 어린이지만 그렇게 알뜰 살뜰 나이와 더불어 균형있게 커가니 (누가 2:52) 기대와 희망을 걸어도 우리가 아닐 것 같다.

정말 나이값을 다하는 너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러나 자만은 금물이다! 네 앞길은 탄탄 대로가 아닌 좁고도 험한 가시밭 길이니 유의하여 조심조심 거닐어 대성하기를 바란다. 두살부터는 말을 배우면서 온갖 재물을 부릴 배이기에 모든이에게 귀여움을 받는 배이나, 조금 자라서 오륙세 이상이 되면, 말쑥구러기로 변하여 미움을 받는 배인 만큼 이점도 미리 유의하면서 커가도록 하려구나. 끝으로 너를 두살까지 애지 중지 키워준 어머님들에게 그 노고를 마음껏 치하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여러 어머님들을 모셨으니 더 잘 클 줄로 믿는다. 속담에 “어른이 많으면 서로 미룬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그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비록 늙고 병든 사람의 일고의 기우인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숲정아!

힘껏 자라고 자라서 사해 팔방 구석 구석을 비추고, 올려 퍼지는 목소리가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축원이다!
(진안 본당 주임신부)

고독한 자매

라파엘

교만이란 자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초라해서 더 크게 보이려고 허세를 과시하려는 적극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한다. 질투란 자기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창피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으로써 자기를 크게 보이려는 소극적인 심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교만과 질투는 자매지간이라고 한다. 교만은 대체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질투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역시 자매지간이라고 한다.

교만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속을 아는 사람이 비웃지 못하게 크게 떠들어 낸다. 질투가 말하기를 “아직 철이 안들어서 그런다.”고 한다. 그래서 남이 옳은 일을 하자나, 바른말을 하자나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괴롭다고 한다.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깨우려드리라고 한다. 신음소리가 나면 시끄러우니까 몰래 묶어두라고 한다.

이 자매는 원조 아담과 이브 이후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마냥 외롭고 고독하다고 한다. 이 자매는 모든 죄의 모체라고 한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한다. 인류는 이 자매와 영원히 싸워야 된다고 한다.

결손과 사랑으로!

소 토 실 공 소



이 태 주 부제

74년 가을 판공을 시작한지도 벌써 두달 쯤 접어들었고 이제 남은 공소도 몇개 되지 않는다. (매주 토요일, 주일 오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날이나 공소에 나갔다) 18개 공소중 유독히 “공소명” 자체부터가 재미있어 기대가 되던 공소가 “소토실 공소”다 공소를 방문하기전 본당 신부님으로 부터 간간히 얻어 들었던 그곳 내력은 더욱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실례이기 까지 하였다.

드디어 공소 방문일자가 되었다. 진안면 물곡리 일부인 소토실은 1958년도형 Willys 자동차로 20분이 소요되었다. 진안에서 장계로 가는 큰길을 10여분 가다가 우측으로 조그마한 냇물을 건넜다. 모퉁이 하나로 돌아서자 환영객들이 줄을 지어섰다. 코흘리게 계집아이와 까까중 사내아이가 손을 흔든다. 인심좋은 운전사 아저씨가 차를 세워 꼬마들을 태운다. 다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길이 몇해전 까지만 해도 비좁아서 차가 들어서기에 대단히 힘들던 곳이였지요. 지금은 공소 신자들의 노력으로 좋아졌어요.” 30년의 사제 생활로 풍부한 사목 경험과 양떼에 대한 사랑이 가득찬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머무시면서 본당 신부님이 말씀하신다. 구부러진 길목을 하나 하나 지날 때 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아줌마들, 잡바 차림의 아저씨들, 곰게 단장한 시골 색씨들, 하얗게 수염이나신 할아버지, 모두가 길모퉁이에 서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한다. 이에 답하여 손을 흔드는 신부님, 한쪽은 양떼를 찾는 인자한 목자이고, 한쪽은 목자를 맞이하는 순박한 양떼들이다. 모두가 기쁨에 가득찬 모습들이다. 멍 멍 멍-

브룩크와 스텔트로 이어진 조그마한 공소집에 절실여명의 신자들이 모여든다.

신부님의 강론과 고백성사, 대인영세와 어린이 보례 그리고 간단한 교리 강좌, 미사, 14처 진립으로 진행된 4시간 이상의 공소행사는 목자와 양떼의 협력으로 은총속에 끝났다.

술과 놀음, 나태와 분열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소토실이었던다. 그러나 신앙에 뿌리박은 착실한 신자 생활은 그들의 영육을 번모케 하였다. 이제는 생활도 많이 나아졌다. 한사람의 냉담자도 없다. 하느님께 많이 감사 드릴때, 그만큼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덩석뿌리 수염을 한 공소 회장님, 금년의 고무급 납부도 일등을 하겠단다. 소토실의 모범된 신자촌의 생활은 이웃 동네 미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목자와 양떼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는 밤을 길게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이어지는 목자와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양떼 사이에 작별인사가 오묘간다. 흔드는 손을 뒤로 하고, 어두움속을 헤쳐며, 질주하는 차안은 훈훈한 열기가 만연하다. 내일은 다음 공소인 동구점이다.

이 기쁨과 보람을 안고 또다시 힘차게 가리라.

(진안 본당)

□젊은이의 광장□

□메아리□



메아리 합창단 2주년에 부쳐

김 영 자

젊은이들의 모임 <메아리>가 만 두살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젊은이들은 교회 밖에서 살기를 더 좋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마음이 약한 노인들이나 부녀자의 안식처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곤 했는데, 젊은이들의 모임이 하나 둘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고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메아리>의 두 젊은 <메아리>의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의 용기는 무섭습니다. 시작부터가 어려워져서 혹시라도 도중하차나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음악을 연구하며 노래하고, 가톨릭 성가 보급을 널리 하자"는 그들의 좋은 뜻이 연습 장소 때문에 난관을 맞게 되었지만, 그들은 끝내 이겨냈습니다. 전동성당에서, 노송동성당에서, 복자성당에서, 여성회관에서, 가톨릭센터에서 그들은 해냈습니다. 피난살이 하듯이 하면서도 그들은 굶지 않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신용조합 행사에도, 아동성가 경연대회에도, 성탄절의 왕정리 공소 자정미사에도, 부활절의 중앙성당 미사에도, 고통받는이들을 위한 미사에도, 교도소 위문 공연에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고도 우렁찬 성가들이 우리의 귀를 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즐거운 것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인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노래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이 붙었고, 우리들의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아끼고 키워주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 메아리 합창단 연혁 ◆

- 1972. 11. 1...발기인 모임 (21명)
 - 11. 21...임원선출 (회장:김동기, 지휘자:김태우, 부회장:김현정, 프린트:김남곤)
 - 1973. 5. 14...연습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일시 중단함
 - 7. 24...다시 활동을 시작함
 - 8. 13...임원개선(회장:김태우, 부회장:이정수, 오정자)
 - 12. 18...1주년 돌맞이 잔치
 - 12. 31...임원개선(회장:유길중, 부회장:이명중, 오정자, 총무:박용신)
 - 1974. 2. 18...가톨릭 센터의 회원 단체 됨
 - 9. 23...임원개선(회장:이정수, 부회장:이광필, 최봉순)
 - 12. 14...2주년 돌맞이 잔치예정(회원수 43명-남 15명, 여 28명)
- (가톨릭 센터 총무)

요십이 (72) 김병오



□시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 이주간의 성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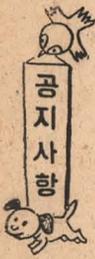
- 9(월) 독서 (이사야 35:1-10)
복음 (루 가 5:17-26 성서 p. 136)
- 10(화) 독서 (이사야 40:1-11)
복음 (마태오 18:12-14 성서 p. 43)
- 11(수) 성 다마스 1세 교황
독서 (이사야 40:25-31)
복음 (마태오 11:28-30 성서 p. 25)
- 12(목)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수절 수녀 (8:21)
독서 (이사야 41:13-20)
복음 (마태오 11:11-15-15 성서 p. 24)
- 13(금)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 기념
독서 (고린토 후서 10:17-11:2 성서 p. 419)
복음 (마태오 25:1-13 성서 p. 61)
- 14(토) 십자가의 성 요안 사제 학자 기념 (11. 24)
독서 (고린토 전서 2:1-10a 성서 p. 373)
복음 (루가 14:25-33 성서 p. 171)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릉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빌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 멋을 창조하는 집 ※
사슴양장점
※ 교우에게 특별봉사 드레스 무료 제공 ※
김형택(바오로)
전주제신청·앞
전화 740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지주교님을 위한 성금에 관한 한국주교단의 호소

지주교님이 영어의 몸이 되신지 여섯 3개월을 넘고, 엄동이 시작되는 요즈음 소식에 의하면 지주교님은 가마니를 깐 병방에 옥교의 고초를 겪고 계시며, 손수 양말을 빨아 신으신다는 뼈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주교님이 수난을 당하시는 날부터 오늘까지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전체는 지주교님을 위한 애절한 기도와, 그의 숭고한 정신을 뒤따르는 여러가지 모양의 자발적인 활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교회의 목자를 위하고, 주님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참된 사랑과 진실과 정의에 동여진 교회단결의 발로라 하겠습니까.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주교님이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희생을 전능하신 분에게 올릴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목자를 잃고 있는 원주교구와 하나가 되어 물질적으로도 지주교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힘이 자란다면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도움고자 하는 마음에서 각 교구에서 행하는 기도와 행사중에 지주교님 돕기 위한 모금을 권장하며, 아울러 교회내 모든 기관에서 자발적인 성금을 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주교단>

- 1. 전주교구 각 분당 교육 부장 회의 : 12월 15일 오후 1시 가톨릭 센터에서
- 2. 메아리 합창단 창립 2주년 발표회 :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서서구
사도 회장 이복석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꾸리아 윌레회 : 오늘 오후 2시
- 2. 추계 판공 성사 : 매일 9시반-12시, 14시-17시
9(월)간중, 용흥공소. 10(화)서노1 2구, 서신11(수)인후, 금암, 진북1구, 12(목)진북2구, 태평2가, 13(금)태평1가 1, 2구, 14(토)오후 : 공무원 학생 16(월) 중앙, 교사, 경원
- *1. 성사표는 당일 사무실에서 드림
- 2. 판공비 (미사예물) 한가정당 100원이상 (학생 50원)
- 3. 교무금 수입, 납부요망
- 4. 사도회 임시총회 : 오늘 공식 미사후 성당에서 (사도회장 선출) 대의원 전원 참석 요망

- 1. 성탄판공 성사 일정 <<오전 10~12시, 오후 2~5시>>
18일 <다가동, 중앙동> 19일 : <태평동, 교사동> 20일 : <서완산동, 효자동, 화산동> 21일 : <진북동, 기타>
※ 지정된 날짜에 빠짐없이 판공성사를 보아 깨끗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 2. 북자 부녀부 피정, 12월 9일 오전 10-16 (북자성당) 오기순 신부님 지도로 미사준비와 묵주준비, 점심식사는 부녀부 제공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신용조합 윌레회 : 오늘 10시 미사후
- 2. 애령회 임원 및 사도회 임원 임시회 (오늘 10시 미사후)
- 3. 교녀회 윌레회 : 다음주 일
-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 성 프란치스코 동상 방직성, 이순애씨 10만원 기증 중노1가, 이순화 5,000원, 중노2가 박옥일 1,000원 중노1가 학생 무명 500원, 남노 김마리아 8,000원
주계 14,500원 주계 1,814,652원
축 결혼 일시 : 1974. 12. 15일 오후 2시 : 전동성당 신랑 : 김경태군, 신부 : 오희정 (헤지나) 양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이현재

- 1. 반회합 : 18반 12월 9일 오전 10시 (반장택에서)
- 2. 분당 판공 일정
19-22일 까지 (공무원 및 학생은 가급적 21일과 22일에)
19일 : 1, 2, 3, 4, 5반 20일 : 6, 7, 8, 9, 10반
21일 : 11, 12, 13, 14반 22일 : 15, 16, 17, 18반
- 3. 상관 사도 윌레회 : 10시 미사후
축 결 혼 최성기군과 강연순양 12월 14일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현
사도 회장 이현재

- 1. 사도회 임원회의 : 공식 미사후
- 2. 판공 안내 12. 9(동산촌), 10-11(내동리), 12-14(미산리), 16-18(전당리) 10(덕진동, 송천동) 20(금암, 팔복) 23(누락자)
- 3. 신용조합 임원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
- 4. 12월달은 공식미사가 없었습니다.

- 1. 자모회 윌레회 : 공식 미사후
- 2. 일일교장 : 박태복 선생님
- 3. 신용조합 윌레회 : 14(토) 저녁 7시 50분
- 4. 판공 성사 실시 예정 : 다음주 발표
- 5. 병자 판공 성사 : 각 가정에 병자가 있으시면 사무장에게 연락 (출장 판공성사 줌)

금주의 숲정이 은인

업 시 문 (익도) 소아과 의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소	소식	봉헌금	지구 분 당	소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 창	김 부 계	신 신 태	인 인 음	제 3 지구	남 고 산	원 산 산	주 장 선 동
	추 · 신 용 조합 창립	사도회 윌레회	학생 성가 연습	2,905원	제 4 지구	사도회 윌레회	성탄시 성가 · 경연대회	분당 특별 사업에 참여합시다
	사도회 윌레회	학생회 회보 발행	일선장병 위문금 특별헌금 (다음주)	11,765원		사도회 윌레회	교부금 납부 요망	9,075원
	사도회 윌레회		꾸리아 회합	8,810원		사도회 윌레회	사도회 제 소집	6,130원
제 2 지구	대 윤 동 동 동 동 동	대 윤 동 동 동 동 동	대 윤 동 동 동 동 동	1,905원	제 5 지구	남 원 주	원 주 계	원 계 안
	학생 성가 연습	일선장병 위문금 특별헌금 (다음주)	학생회 정기총회	29,315원		사도회 윌레회	성탄시 불우한 이웃을 도움시다	4,215원
	학생회 정기총회	꾸리아 회합	꾸리아 회합	16,250원		교부금 납부 요망		
	꾸리아 회합			11,840원		사도회 제 소집		4,165원